

松木の效用

李 錫 熙



松木은 常綠喬木으로 金松 山松 海松 羅漢松 等の 種類가 있고 部位別로는 松葉 松荀 松花(松蕊) 松油脂(松脂) 松木皮 根 白皮 松皮膏 松子仁(松子) 松花石 等으로 分類하여 各 藥用으로 用途가 多様하다. 그리고 큰소나무를 자르고 나면 뿌리에서 吸收한 營養이 땅속에서 悶쳐져 생긴 것이 茯苓이고 松花가 땅에 떨어져 흙속에 悶쳐 悶쳐진 것이 4月 5月の 風雨를 맞고 나서 땅위로 솟아 나는데 뿌리는 없으나 큰 것은 계란 크기만 하

다 이것을 松黃이라고 한다

一. 松木の 部位別 藥用

(1) 松子仁(松子)

소나무 열매의 씨이다 잣알 크기만 한데 心肺滋潤 大腸機能 調節藥이며 잣죽처럼 끓인 松子粥은 옛부터 强壯食으로 손꼽는다.

(2) 松葉

心熱을 解消하고 心臟을 편하게 한다고 하며 生食하는 사람들의 食用이 된다

(3) 松木皮

腫 또는 癌에 應用하며 止血의 效能이 있어서 傷處에 치료약으로 쓴다. 또는 찌서 (익혀서) 代用食으로 하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4) 松皮膏

큰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겨 폭 고아 익히면 색이 옷(漆)처럼 검게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호박색으로 변하면서 좋은 香氣를 풍기는 膏藥이 된다 이는 肺結核 咯血, 吐血, 기침, 婦人빈혈 또는 通經藥으로 쓰기도 한다.

(5) 松油脂(松脂, 松油)

백반가루를 섞어서 皮膚藥(음약)으로 쓴다.

(6) 松花(松蕊)

소나무꽃은 止血作用 活力을 增加하고 心肺滋潤 等に 用한다. 옛날에는 떡고물로 쓰기도 하였다고 하니 毒한 것은 아니다 上焦에 熱을 發生한다고 하니 過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7) 松化石

老松이 꺾어져서 흐르는 물에 쳐박혀 土砂에 묻혀 오랜 세월이 지나 化石으로 變한 것이다. 이는 相思病의 名藥으로 알려져 있다.

(8) 松黃

味甘無毒, 生津祛痰, 治小便不禁

× 松蕊丹(松花丹) 松花 枳殼 獨活 防風 各同量製丸하여 龜背(구루병)에 治藥으로 쓴다.

二. 松木讚辭

소나무는 그 高高하고 雄大한 氣象으로 거센 비바람과 차디찬 北風寒雪에도 변함없이 푸르름을 지니는 절개와 強忍한 끈기와 소리없는 能力으로 묵묵히 극복하며 數百年을 成長한다 그러므로 延年益壽를 追求하는 우리들 韓方學과 關聯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李太白의 詩中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생각난다

「松風 清襟心 송풍은 청금심이요

石潭 洗滌耳 석담은 세심이라」

‘松林아래 옷깃에 스며드는 서늘한 바람(공기)는 심장(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하고 자갈밭에 흐르는 맑고 맑은 물은 물가에 앉아 보기만해도 귀속이 시원하게 뚫린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나라의 유명했던 畫家들중 李朝末期의 李寅文은 그림 全面을 뒤덮은 松林사이로 溪流가 흐르고 그곁에 작은 平地에 셋바람이 벗하여 둘러앉아 閑談을 즐기는 그림이 바로 李寅文의 松溪閑談圖이고 李慶胤의 松壇步月圖 李麟祥의 松雪圖 李上佑의 松下步月圖 등은 李朝時代의 名畫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그림의 共通된 배경은 낙낙장송이거나 우거진 松林, 그리고 溪谷의 물이 흐르고 눈내린 雪境이거나 은은한 달빛이 있고 그아래 몇사람이 閑談을 하거나 한가로이 거니는 그야말로 여유있고 神仙처럼 욕심없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고 사는 志士의 氣風이 아니겠는가. 소나무아래 그 맑은 청정한 공기! 오염된 혼탁한 空氣를 걸러주는 소나무, 高貴한 소나무여! 고마운 소나무여!

(경남 김해시 전하동 43-12 세종당한약방 ☎ 0525-336-4664)